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개역개정판』 번역에 대한 소고

-열왕기상 8:1-53//역대하 5:2-6:42 평행본문을 보기로-1)

김정훈*

1. 들어가는 말

우리말 구약성경의 첫 완역은 1911년에 나온 『구약전서』로 거슬러 올라간다.²⁾ 이 『구약전서』는 1900년부터 선교사 레이널즈(W. D. Reynolds)와 1907년부터 번역 작업에 탄력을 실어주었던 한국인 번역위원 이승두와 김정삼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1910년 봄에 완역하여 이듬해 간행되었다. 이 번역을 두고 일반적으로 ‘구역’(舊譯)이라 일컫는다.³⁾ 이 번역은 “영어 개정본”(The Revised Version)과 “미국 표준 역본”(The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저본(底本)으로 해서 히브리어 원전을 참조하고, 중국어 역, 일어 역, 라틴어 역, 불어 역, 독어 역, 러시아어 역 등을 대조하여 이루어졌다.⁴⁾

하지만 선교 초기부터 여러 개인 번역을 거쳐 공인본으로 옮겨진 신약성경⁵⁾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이 번역하다 보니, 구역은 나오자마자 곧바로 개역의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리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ihoze@hotmail.com.

- 1) 본 논문은 2014년 4월 25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제95차 한국구약학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을 밝힌다.
- 2) 대영성서공회 편, 『구약전서』(경성: 대영성서공회, 명치44[1911]); 韓國聖經大全集 10, 11, 19, 20(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영인본 10권과 11권의 표지에 제각각 『신약(상)(1900)』, 『신약(하)(1900)』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우리말 구약성경 번역사는 우선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7-204를 참조하라. 그리고 제각각 역본의 특징과 더불어 약술한 글로는 김정훈, 『우리말 역본과 함께 하는 호세아 주석』(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14-28을 보라.
- 3) 류대영 외, 『대한성서공회사 II』, 81.
- 4)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28-29.
- 5) 나재운, 『우리말 성경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90), 35-48.

하여 선교사 게일(G. S. Gale), 베어드(W. M. Baird), 피터스(A. A. Pieters) 등을 중심으로 개역되어 1937년에 완성되었고 이듬해에는 신약성경의 개역과 더불어 『성경 개역』으로 출간되었다.⁶⁾ 구역과 비교해 보면, 『성경 개역』은 구역이 끝난 바로 뒤 시작했기 때문에 어휘로 봐서는 큰 변화 없이 문장을 주로 다듬었으며, 가장 큰 변화라면 아래 ‘·’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⁷⁾ 『개역한글판』 성경은 1956년에 당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맞춤법의 수정·편집을 완성하여 1961년에 출간하였다.⁸⁾ 그러니 번역 자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 번역본을 그 이후로도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정경으로 사용하였다.

이 『개역한글판』 성경은 199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정되기에 이른다.⁹⁾ 『개역개정판』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의 뜻을 좀 더 잘 옮기는 것,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는 것,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표기를 바르게 고치는 것, 우리말 표현을 다듬고 뜻을 밝히는 것 등이었다.¹⁰⁾ 『개역개정판』 성경은 『개역한글판』 성경의 기본적인 특징을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개역한글판』에서 수정한 건수가 구약성경에서 59,888건, 신약성경에서 12,823건으로 더하면 72,711건에 이른다. 이것은 1956/1961년의 『개역한글판』을 출간할 때 730여 건을 수정한 것에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다.¹¹⁾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정한 『개역개정판』 성경은 과연 더 이상 재고할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을 시대에 따라, 또 학문의 발전에 따라 거듭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하다. 또한 이 질문에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대한 양면적 관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곧 한편으로는 『개역개정판』 성경이 나오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의 노고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난 복음의 열풍, 그리고 『개역개정판』 성경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관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개역개정판』 성경의 한계와 문제점에서 비롯하는 재개정 필요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관점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미 『개역개정판』 성경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측면의 연구가 나왔다.¹²⁾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 더하여 우리는, 『개역개정판』

6) 조선성서공회 편, 『구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昭和 13[1938]); 韓國聖經大全集 40, 41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영인본).

7)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57.

8)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6).

9)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⁴2005).

10) 자세한 내용은,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을 보라.

11) 김정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68:3 (2001), 149.

구약성경의 본문에서 여태껏 주목받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의 재고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곧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번역을 견주어 살펴보려는 것이다.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수많은 평행본문이 있으며, 이 본문들에 대한 대조나 분석 연구들도 많다.¹³⁾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에는 물론 서로 다른 사관(史觀)에서 비롯한 차이점들도 있지만, 같은 자료에 기댄 본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두 전승이 자음 본문에서까지 일치하는 경우도 많다.¹⁴⁾

기본적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히브리어 본문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부분적인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듯 그 번역도 같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역개정판』의 경우 아쉽게도 이 부분의 통일성에 문제를 드러낸다. 더욱이 이전 번역인 『개역한글판』 성경은 두 본문의 번역을 일치시키려 노력했음에도 『개역개정판』에서 달라진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두 본문을 서로 다

12)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나채운, “개역성경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기독교사상』 42:10 (1998), 158-166; 도한호, “『개역한글판』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 (1998), 19-42;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성경원문연구』 2 (1998), 91-96;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4 (1999), 65-90; 박동현,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198-229; 서철원, “개역개정판 성경의 문제 -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신학지남』 68:3 (2001), 176-222; 이한수, “개역개정판 ‘성경전서’에 대한 평가 - 갈라디아서”, 『신학지남』 68:3 (2001), 223-231; 유재원,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 『신학지남』 70:1 (2003), 4-8; 강승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구약논단』 38 (2010), 93-113; 강성열, “개역개정판의 창세기 번역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신학이해』 40 (2011), 11-33; 강성열, “개역개정판의 호세아 번역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 (2011), 55-75 등.

13) P. Vannutelli, *Libri Synoptici Veteris Testamenti seu Librorum Regum et Chronicorum loci paralleli*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31); A. Bendavid, *Parallels in the Bible* (heb.) (Jerusalem: Carta, 1965, 2010 repr.); W.D. Crockett, *A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51, 1985 repr.); J. Newsome, *A Synoptic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With Related Passages from Psalms, Isaiah, Jeremiah and Ezra* (Grand Rapids: Baker Books, 1986); J. Kegler and M. Augustin, *Synopse zum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 BEATAJ 1 (Frankfurt: Peter Lang, 1993); J. C. Endres, W. R. Millar and J. B. Burns,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등. 한편 우리말 본문 대조 연구로는, 이종록,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본문대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황선우, 『사무엘·열왕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황선우, 『역대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등을 들 수 있다.

14) 이런 경우는 위의 각주 13)에서 소개한 벤다빗(Bendavid)의 책에서 잘 알아볼 수 있다. 벤다빗은 이 책에서 평행본문이 서로 차이 나는 곳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평행본문은 자구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이 추가되거나 누락된 부분도 더러 있다.¹⁹⁾ 적어도 마지막 두 경우는 번역을 할 때 역본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모든 경우의 제각각 차이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런 차이점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행본문을 우리말 『개역개정판』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차이점들은 두 평행본문의 대부분을 이루는 일치점들과 더불어 『개역개정판』 성경의 평행본문 번역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자료 구실을 한다.

3. 두 평행본문에 대한 『개역개정판』의 번역 분석

이제 우리는 두 평행본문에 대한 『개역개정판』 성경의 번역을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히브리어 원문뿐 아니라 『개역한글판』 성경(1956; 1938)의 번역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역 본문(1911)도 참조할 것이다. 분류는 아래서 보듯, 『개역개정판』에서 개선된 경우, 『개역한글판』의 문제점이 이어진 경우, 『개역개정판』에서 이전에 없던 문제점이 생긴 경우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3.1. 『개역개정판』 성경이 『개역』 성경을 개선한 경우

3.1.1. 히브리어 대본의 차이 반영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민영진이 밝히듯,²⁰⁾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אלתחנני/אלתחנת (왕상 8:30//대하 6:21); מן־השמים/אל־השמים (왕상 8:30//대하 6:21); אשר (왕상 8:31//대하 6:22); להשיב לרשע/להרשיע רשע (왕상 8:32//대하 6:23); ואם־יננה/בהנף (왕상 8:33//대하 6:24); כי־אשר (왕상 8:33//대하 6:24); לפניך/אלך (왕상 8:33//대하 6:24); ומצאבו/לבבו (왕상 8:38//대하 6:29); אלך/אל־יהוה (왕상 8:44//대하 6:34); שבים/שביהם (왕상 8:47, 48//대하 6:37, 38); ולבית/והבית (왕상 8:48//대하 4:38).

19) ① 열왕기 본문에만 있는 본문: אל־המלך שלמה (8:1); בירח האתנים (8:2); יהוה [ארון] (8:4); [הלוים] (8:4); [מן־ארץ מחרים] (8:9); את־בית יהוה (8:10); את־ישראל (8:16); [כין] אם (8:19); אבי [יאמר] נא (8:26); ממעל ... מתחת (8:23); בהוציאו אתם מארץ מצרים (8:21); מקום (8:26); האויב כל־בני (8:39); ועשית (8:39); [מן־מחטאתם] (8:35); אלך (8:33, 48); היום (8:28); ② 역대기 본문에만 있는 본문: ה[לחות] (5:10); והבית (5:13); [מן־ארץ מצרים] (6:5); נתת[ה] להם [ולאבתיהם] (6:23, 25, 30, 33, 35, 39); יהוה (6:17); את־הארזים (6:18); מן־[השמים] (6:23, 25, 30, 33, 35, 39); [נתת] (6:25); [השמים] (6:26); [ונעו] (6:29); ללכת בדרךך (6:31); [אתה] (6:33); [מן־מכון] (6:33, 39); [העיר] (6:38); [ליראה] (6:33); [העיר] (6:38).

정확히 번역하지 않았거나 잘못 번역한 본문을 고치는 것이 주된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서도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다음에서 보기로 든 경우는 분명히 『개역개정판』 성경의 성과라고 여길 수 있다.

열왕기상 8:4의 본문에서 언약궤와 성전 기물들을 솔로몬 성전으로 메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הכהנים והלויים”(제사장들과 레위인들)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역대하 5:5에서는 두 낱말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빠진 채 쓰였다. 이런 표현이 더러 쓰이는 것으로 보아²¹⁾ 역대기에서 접속사가 없는 본문은 의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두 낱말은 서로 다른 집단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연계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결국 두 낱말은 동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겠다.²²⁾ 곧 “레위인 제사장들”이라고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역대기 저자는 아마도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이들의 레위계 혈통을 이 표현으로 강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구역에서부터 두 평행본문을 동일하게 옮겼다(구역: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개역: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번역은 분명히 칠십인역이 두 곳을 모두 “οἱ ἱερεῖς καὶ οἱ Λευῖται”로 옮긴 데서 시작한 전통일 것이다. 영어 역본의 경우 흠정(欽定) 역(KJV)이 이 전통을 따른다. 하지만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앞서 언급한 히브리어 본문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려 하여 열왕기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로, 역대기의 본문은 “레위인 제사장들이”로 구분해서 옮겨져 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열왕기상 8:34에서는 회복될 땅을 “נחם לאבותם”(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으로 표현한다. 이에 비해 역대하 6:25에서는 “נחם להם ולאבותיהם”(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으로 확장된 본문을 제공한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를 통해 약속의 현재화를 피하려 한 듯하다.²³⁾ 이 본문의 차이는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도 드러나 있다. 하지만 『개역』 성경의 전통은 복수형 “להם”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으로 옮겨서 오히려 단수형의 본문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 번역은 구역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20)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8.

21) 신 10:8; 31:9; 대하 23:18; 30:27; 스 10:5 등.

22) 이런 견해로 R. W. Klein, *2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71을 참조하라. 참고로 최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는 이렇게 접속사 없이(asyndeton) 쓰인 이 표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새겨야 한다는 견해는, 민영진, “‘하코하님 하르위임’의 번역 재고”, 『부산장신논총』 13 (2013), 25-40을 보라.

23) 참조. R. W. Klein, *2 Chronicles*, 94; S. Japhet, *2 Chronik*, HThK.AT (Freiburg: Herder, 2003), 86.

조상들에게 주신”으로 고쳐서 본문의 의미를 우리말에서 분명히 하였다.²⁴⁾

3.1.2. 우리말 표현의 개선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친 부분이 새롭게 바뀐 맞춤법이나 현재 쓰이는 표현에 맞춘 경우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도 그런 경우는 제법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열왕기상 8:23에는 하늘과 땅을 견주어 쓰는 대조제유법(merismus)에서 평행 본문인 역대하 6:14에 없는 부사가 둘 더 있다. 역대기에서는 “בַּשָּׁמַיִם וּבָאָרֶץ”(하늘과 땅에)로 쓰였는데, 열왕기에는 “בַּשָּׁמַיִם מִמַּעַל וְעַל-הָאָרֶץ מִתַּחַת”(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로 쓰여서 뜻이 더 명확해졌다. 구역에서는 두 본문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툰디 간에”로 옮겼다.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 제각각 “上天下地에”와 “天地에”로 개선하여, 『개역한글판』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개역개정판』 성경은 옛날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한자어는 순우리말로 고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²⁵⁾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열왕기의 표현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로 고쳤다. 다만 역대기의 역본은 그대로인데, 이것도 “하늘과 땅에”로 하여 열왕기 표현과 맞추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도 『개역개정』에서 우리말 표현에 따라 고친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⁶⁾

3.2. 『개역한글판』의 문제점이 『개역개정판』에서 그대로 이어진 경우

『개역개정판』 성경의 개정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에도 『개역한글판』 성경의 오류가 『개역개정』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히브리어 본문의 미세한 차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생긴 경우도 있고, 우리말 표현의 잘못을 미처 수정하지 못

24) 이와 비슷한 경우로 “מִמַּחֲטָאתָם”을 “그 죄에서”로 번역한 개역 성경의 전통을 “그들의 죄에서”로 분명히 한 왕상 8:35//대하 6:26과 개역 성경의 “자기를”을 히브리어 복수 인칭어미를 살려 “자기들을”로 바꾼 대하 6:38 등을 들 수 있다.

25) 참조,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19-23.

26) 가로되→이르되(왕상 8:12//대하 6:1; 왕상 8:15//대하 6:4); 온역→전염병(왕상 8:37//대하 6:28); 저희가→그들이(왕상 8:40//대하 6:31 passim); 물론하고→막론하고(왕상 8:47//대하 6:36) 등.

한 경우도 있다.

3.2.1. 히브리어 본문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열왕기상 8:9에서 언약궤의 두 돌판을 언급하는 장면의 본문 일부는 “אשר הניח שם משה” (모세가 거기에 안치한)으로 기록한다. 이에 비해 역대하 5:10에서는 “אשר־ניתן משה” (모세가 준)으로 썼다. 두 본문은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서로 다른 낱말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열왕기가 돌판의 언약궤 안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역대기는 신명기 9:9나 10:1과 마찬가지로 율법 수여의 매개자로서 모세가 강조되었다. 이렇듯 본문은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음에도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판』 성경은 한결같이 “모세가 …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로 옮긴다. 이 번역은 칠십인역이 두 본문 모두를 같은 동사를 써서 “ἔθηκεν [ékēi] Μωυσης”로 옮긴 전통과 잇닿아 있으며, 영어 성경의 전통으로 이어졌던 데서 비롯했을 것이다 (“put”[ASV, KJV]).

열왕기상 8:32상반절//역대하 6:23상반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다.

וְאַתָּה תִּשְׁמַע [מִן־] הַשָּׁמַיִם וְעָשִׂיתָ וְשִׁפְטָתָ אֶת־עַבְדֶּיךָ 왕상 8:32
 (그러니 이제 당신께서는 하늘에서[역대기: 부터] 들으시고 행동하시
 되 당신의 종을 심판하소서)

לְהָרְשִׁיעַ רָשָׁע לְחַתּ הַרְכוּ בְּרֹאשׁוֹ
 (그리하여 악인을 정죄하셔서, 제각각의 길을 제 머리에 되돌리소서)

לְהָשִׁיב לְרָשָׁע לְחַתּ הַרְכוּ בְּרֹאשׁוֹ 대하 6:23
 (그리하여 악인에게 되돌리시되, 제각각의 길을 제 머리에 되돌리소서)

위의 본문과 번역에서 보듯 두 본문은 뒷부분에서 서로 다른 낱말을 선택하여서 뜻도 미세하지만 달라졌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역에서 부터 『개역개정』에 이르기까지 뒷부분 두 본문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옮겼다.

『구약전서』 악한 자의 죄를 명하야 그 형위를 그 머리로 도라가게 함
 읍시며

『성경개역』 惡한 者의 罪를 定하야 그 行爲대로 그 머리에 돌니시고

『개역개정』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이렇게 두 본문을 같게 옮긴 것은 본문 증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통이다. 결국 초기의 부주의한 번역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개역개정』은 열왕기 본문에서는 “그 머리에”로 옮기고 역대기에서는 “그의 머리에”로 옮겨서 상호 독회의 문제점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그밖에 다음의 경우들도 히브리어 본문의 차이를 『개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은 것을 『개역개정』이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다.

평행본문	히브리어	『개역』=『개역개정』	개선안
왕상 8:29 대하 6:20	לילה ויום ויום ולילה	주야로	밤낮으로 낮이나 밤이나
왕상 8:41 대하 6:32	וגם	(-) 또	또
왕상 8:48 대하 6:38	בארץ איביהם בארם שבים	적국의 땅에서	원수들의 땅에서 포로지에서

3.2.2.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몇몇의 경우에는 『개역한글판』의 표현 차이가 개선 없이 『개역개정판』에 그대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어	『구약전서』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왕상 8:13 대하 6:2	בית־זבל בית־זבל	계실 성던	계실 殿	계실 성전
왕상 8:24 대하 6:15	אשר שמרת אשר שמרת	직히섯스니 곳	직히사 직히시대	지키사 지키시되

위의 두 경우 모두 히브리어 본문은 같으며 두 평행본문을 달리 번역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말 성경에서 달라진 경우다. 『개역개정』에서 이런 통일성 없는 번역이 그대로 이어졌다.

3.3.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이전에 없던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다. 여기서는 두 평행본문의 히브리어가 동일한 경우가 속한다. 이런 경우 먼저 『개역한글판』에서 평행본문을 동일하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판』에서 서로 다르게 옮겨진 경우가 두드러진다. 대부분은 두 평행본문 가운데 한 본문의 수정자만 달리 번역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개역한글판』에서 동일했던 번역 본문이 두 본문의 수정자가 제각각 수정을 해서 달라진 경우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두 평행본문 수정자들이 상호독회에 소홀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용례들을 찾아 제각각 히브리어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경우와 우리말 표현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하기로 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루는 모든 용례들은 히브리어 본문, 『구약전서』, 『성경개역』,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의 본문을 주로 견주어 보며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3.3.1. 한쪽만 달라진 경우

1) 열왕기가 달라진 경우

(1) 히브리어 본문 관련

① 열왕기의 『개역개정판』 개정자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고려하여 개정하여 번역의 통일성이 깨진 경우가 있다.

먼저, 열왕기상 8:35//역대하 6:26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והתפללנו”로 쓰인다. 이 동사를 우리말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빌며”로 옮겼다. 하지만 『개역개정판』의 열왕기에서는 이를 “기도하며”로 고쳤는데, 아마도 개정자는 “기도하다”가 “빌다”보다 더 기독교적이라 여긴 듯하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보기는 열왕기상 8:36과 역대하 6:27의 평행본문이다. 이 구절에서 쓰인 관계문 “אשר ילכו בה”를 우리말 역본들은 역대기 번역문에서 보듯 “그 마땅히 행할”로 옮겼다. 하지만 열왕기의 개정자는 동사의 주어가 복수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할”로 고쳤다.

② 『개역개정판』 열왕기의 개정자만 번역을 고쳤는데, 그 고친 번역이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먼저, 열왕기상 8:35//역대하 6:26의 경우를 보자. 히브리어 본문은 두 곳다 “יהוה”로 쓴다. 이 본문은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그들이 … 인정하고”로 옮겼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에 와서 역대기의 번역은 그대로 이어졌지만, 열왕기의 번역은 “찬양하고”로 고쳤다. 이 낱말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 동사의 목적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경우 동사 “יהוה”는 회개제의(Bußgottesdienst)를 삶의 자리로 전제하며 백성들이 불렀던 탄원시(Volksklagelied)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²⁷⁾ 그래서 사실상 구역이 선택했던 “높히고”나 『개역개정』 열왕기상의 수정 번역인 “찬양하고”도 다 수긍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칠십인역이 두 평행본문에서도 서로 다른 번역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열왕기 본문의 경우 칠십인역은 “καὶ ἐξομολογήσονται τῷ ὀνόματί σου”(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인정하면)로 옮기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καὶ αἰνέσουσιν τὸ ὄνομά σου”(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면)로 옮긴다.²⁸⁾ 칠십인역의 번역에서도 우리는 히브리어 동사 “יהוה”의 문맥에 따른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역개정』에 와서 히브리어에는 같은 낱말이 평행본문에서 달라졌다는 점이다. 물론 두 번역이 다 가능하지만, 어느 한 번역으로 통일해야 한다. 본문이 전제하는 삶의 자리를 고려한다면, 구역이 선택한 대로 “높여드리고”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8:37//역대하 6:28의 경우를 보자.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본문은 “בְּאֵרֶן שְׁעָרָיו”이다. 우리말 역본 가운데는 구역이 “성문을”로 옮겨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지만 『개역』부터 『개역개정판』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에 대한 번역은 “성읍을”로 바뀌었다. 이것은 칠십인역을 반영하는 번역이다. 칠십인역은 이 경우 열왕기와 역대기가 제각각의 번역을 보여준다. 사실 히브리어 본문은 “그들의 성문들의 땅에 (원수들이 와서)”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다. 칠십인역 열왕기는 여기서 “ἐν μὲν τῶν πόλεων αὐτοῦ”(그들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에서)로 옮겼는데, 이 번역은 아마도 “בְּאֵרֶן שְׁעָרָיו”를 대본으로 삼았을 것이다. 여기서 “שְׁעָרָיו”의 “ש”를 번역자는 관계사로 여긴 듯하다.²⁹⁾ 한편, 칠십인역 역대기는 “κατέναντι τῶν

27) 참조, G. Mayer, “יהוה jdh, II. Bedeutung, 1. im hebr. Sprachgebrauch”, *ThWAT* III (1982), 457.

28) 다만, 루키안 본문을 반영하는 중세 두 소문자 필사본(be₂)은 열왕기 본문과 맞추었다.

29) 이 구절의 히브리어 대본을 “בְּאֵרֶן שְׁעָרָיו”로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R. W. Klein, *2 Chronicles*, 84), 이는 잘못된 견해라 여긴다.

πόλεων αὐτῶν”(그들의 성읍을 대항하여)로 옮겼는데, 이 번역은 사실상 마소라 본문과 구별되는 히브리어 대본이 아니라, 어려운 본문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³⁰⁾ 여하튼 『개역』 성경부터 볼 수 있는 번역어 “성읍”은 이렇게 칠십인역의 본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개역개정판』 역대기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복수형을 살려서 “성읍들을”로 옮겼다. 하지만 위에서 살폈듯, 마소라 본문을, 구역이 번역했듯, “שַׁעֲרֵי”의 “ש”를 “성문”의 첫 자음으로 볼지,³¹⁾ 관계사로 보거나 지우고 “그들의 성읍들”로 이해할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셋째 보기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가정하며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 열왕기상 8:47//역대하 6:37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마소라 본문은 “והַעֲוִינוּ”이다. 구약성경에서 이 낱말은 종종 히필형으로 쓰여서 범죄의 뜻으로 쓰인다.³²⁾ 하지만 이 동사 “עוה”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만날 수 있다.³³⁾ 우리말 성경은 구역부터 『개역한글판』까지 두 본문 모두에서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 “패역을 행하며”(구역: 패역한 일을 행하며)로 옮겼다. 여기서 쓰인 “패역”(悖逆)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順理)를 거스름”이라는 뜻이어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잘 담겨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이어서 개정이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열왕기의 개정자는 “반역을 행하며”로 고쳤다. 하지만 히브리어 어원을 볼 때, “패역”보다 나은 선택이라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두 평행본문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동사의 어원적 의미를 살려 “어긋나갔으며” 정도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우리말 표현 관련

우리말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에 와서 동일한 대본의 평행본문 번역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두 번역 모두 우리말 표현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상호독회를 통해서 번역을 둘 가운데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30) R. W. Klein, *2 Chronicles*, 84.

31) 이 낱말을 “성문”으로 본 고대 역본으로는 불가타를 들 수 있다(portas eius).

32) 참조, 삼하 7:14; 19:20; 24:17; 시 106:6; 렘 9:4 등.

33) Gesenius-Handwörterbuch¹⁸, 932; HALAT, 752.

	히브리어	『구약전서』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왕상 8:5	מִזְבְּחִים	제스 드리논티	祭祀를 드렸스니	제사를 드렸으니	제사를 지냈으니
대하 5:6		제스를 드리니	祭祀를 드렸스니	제사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왕상 8:20	תחת	니여	代身하야	대신하여	이어서
대하 6:10		니여	代身하야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상 8:48	העיר	성과	城과	성과	성읍과
대하 6:38		성과	城과	성과	성과

2) 역대기가 달라진 경우

우리가 살핀 본문 범위에서 히브리어 본문이 동일한 경우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열왕기가 달라진 경우보다는 아래서 보듯 역대기에서 훨씬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역대기의 개정자가 더 적극적인 개정 경향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문제점은 열왕기 개정자와 충분한 상호독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1) 히브리어 본문 관련

① 역대기의 『개역개정판』 개정자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고려하여 개정하여 번역의 통일성이 깨진 경우가 있다.

먼저, 열왕기상 8:1//역대하 5:2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מְעִיר רוּיֵד הִיא צִיּוֹן”이다. 이 표현을 우리말로 옮기자면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정도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말 역본들의 뒷부분 번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약전서』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시온에서	시온에서	시온에서	시온에서
시온 성에서	시온에서	시온에서	시온에서부터

우선 구역 역대기 번역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성”(城)을 집어 넣었는데, 이는 “다윗 성”과 동격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전치사 “מִן”의 번역이다. 『개역개정』 역대기의 개정자는 이 전치사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개역』 성경의 “~에서”를 “~에서부터”로 고쳤다.

둘째, 열왕기상 8:19//역대하 6:9에서 “מִחֲלִצֶיךָ”로 쓰인 히브리어 본문의 쌍수형 명사 “חֲלָצִים”은 구체적으로 허리를 뜻한다.³⁴⁾ 일찍이 구약에서는 “네 허리에서”로 옮겨서 이 뜻을 살렸는데, 『개역』에서는 이를 “네 몸에서”로 고쳤고 이것이 열왕기의 『개역개정』에까지 이어졌다. 한편, 역대기에서는 다시금 구약이 택했던 “네 허리에서”로 고쳤는데, 이로써 원문의 의미는 분명해졌으나 역시 번역의 통일성은 깨졌다.

다음으로는 열왕기상 8:27//역대하 6:18에서 역대기의 개정자가 그간 우리말 번역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히브리어 불변화사(particle) “הנה”를 “보소서”로 분명히 하여 옮긴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개역개정판』 역대기의 개정자만 번역을 고쳤는데, 그 고친 번역이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먼저, 열왕기상 8:3과 역대하 5:4의 평행본문 “כָּל זְמַן יִשְׂרָאֵל”에 대하여 역대기 『개역개정판』 개정자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라는 번역 전통에서 벗어나 “כָּל”의 번역어인 “다”를 빠뜨렸다. 이 경우는 분명히 역대기 개정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수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보기로, 열왕기상 8:25와 역대하 6:16에서 쓰인 히브리어 본문 “אֲחֻזְרוּכֵם”을 역대기 개정자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자기 길을”을 “그들의 행위를”로 고쳤다. 물론 문맥을 보자면,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 곧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조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본문을 직역한 『개역』의 전통도 이런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깨뜨린 역대기의 수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우리말 표현 관련

열왕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말 표현과 관련하여 『개역개정』에 와서 역대기 수정자가 번역을 고치는 바람에 동일한 대본의 평행본문 번역이 달라졌다. 이 경우도 상호독회를 통해서 번역을 둘 가운데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34) 이와 같은 표현은 창 35:11을 보라.

	히브리어	『구약전서』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왕상 8:14	ויסב	도리켜	도리켜	돌이켜	돌이켜
대하 6:3		도리켜	도리켜	돌이켜	둘러
왕상 8:14	כל־קהל ישרא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會衆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
대하 6:3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會衆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
왕상 8:27	ישב	거하시겟는 잇가	거하시리잇가	거하시리이까	거하시리이까
대하 6:18		거하시겟는 잇가	거하시리잇가	거하시리이까	계시리이까
왕상 8:28	תפלת	부르지짐	부르지즘	부르짚음	부르짚음
대하 6:19		구하느	부르지즘	부르짚음	부르짚는 것
왕상 8:35	ולא יהיה מטר	비가 업서	비가 업서서	비가 없어서	비가 없어서
대하 6:26		비를 느리지 으니하야	비가 업서서	비가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왕상 8:36	ואתה	쥬씩서	주는	주는	주는
대하 6:27		쥬씩서	주는	주는	주께서는
왕상 8:47	רשענו	악을 지었나이다	뺨을 지었나이다	악을 지었나이다	악을 지었나이다
대하 6:37		악을 지었나이다	뺨을 지었나이다	악을 지었나이다	악을 행하였나이다

3.3.2. 양쪽 다 달라진 경우

1) 히브리어 본문 관련

① 두 개정자가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두고 제각각 서로 다른 수정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반영한 경우가 있다.

먼저, 열왕기상 8:6//역대하 5:7의 경우 히브리어 본문은 “דביר הבית”이다. 여

기서 쓰인 “דביר”는 “뒤에 있다, 뒤로 돌리다”는 뜻의 동사 “דבר”³⁵⁾에서 파생한 명사로, 구약성경에서 지성소를 일컫는 “קדש הקדשים”³⁶⁾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³⁷⁾ 실제로 이 구절에서는 두 표현이 잇달아 나와서 “דביר הבית”를 “קדש הקדשים”이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꼴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까지 이 두 표현을 “내전 지성소”로 옮겼다. 그런데 열왕기의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성소”와 구분되는 “דביר הבית”를 히브리어 표현을 살려 “성전의 내소”로 고쳤다. 반면에 역대기의 『개역개정판』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본전”으로 옮겨서 본디 번역 전통보다 더 모호해지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다음으로는 열왕기상 8:28과 역대하 6:19의 보기를 들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야훼께 스스로를 “עבדך”라고 일컫는다. 『개역 한글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번역 전통에서 이 표현은 인칭대명사를 빼고 “종이”로만 옮겼다. 『개역개정판』에 와서 이 표현은 두 본문 모두에서 수정되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지시사를 써서 “이 종이”로 옮겼다. 이 수정은 사실상 히브리어 본문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2인칭 남성 대명접미어를 『개역』 성경의 표현에 따라 존칭을 써서 “주의 종이”라고 고쳤다.

셋째 보기는 열왕기상 8:43과 역대하 6:3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히브리어 본문은 “ככל אשר-יקרא אליך הנכרי” (이방인이 당신께 부르짖는 것 모두 그대로)이다. 특히 여기서 쓰인 “כָּל”은 구역에서부터 『개역 한글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에서 “종합하여 살펴보건대”라는 뜻을 가진 부사 “무릇”으로 옮겼다. 하지만 역대기의 『개역개정판』에서 이 번역은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로 개정되어 히브리어 “כָּל”을 살리려 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문장 전체를 받는 히브리어 표현과는 달리 역대기의 본문은 “이방인”만을 꾸미는 관형사가 되어 의미의 차이가 생겼다. 반면에 열왕기의 개정자는 아예 이 표현을 빼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만으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역대기가 원문을 반영하려 했지만,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두 개정자의 서로 다른 수정이 저마다 의미가 있어 상호독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경우다.

35) 참조, HALAT, 200-201.

36) 참조, 출 26:33, 34; 왕상 6:16; 7:50; 8:6; 겔 41:4; 대하 3:8, 10; 4:22; 5:7.

37) 참조, 왕상 6:5, 16, 19-23, 31; 7:49; 8:8; 시 28:2; 대하 3:16; 4:20; 5:9.

	히브리어	『구약전서』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왕상 8:44	על-איבו	그 덕국으로 더브리	그 敵國으로 더브리	그 적국으로 더불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대하 6:34		그 덕국으로 더브리	그 敵國으로 더브리	그 적국으로 더불어	그 적국과 더불어

여기서 번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수 명사에 붙은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접미어의 처리다. 역대기의 개정자가 단수임을 재확인하며 “그”로 옮긴 기존의 번역을 유지했다면, 열왕기의 개정자는 이 본문의 문맥이 “백성”임을 고려하여 비록 원문과는 다르지만 “그들의”로 고쳤다.

(2) 우리말 표현 관련

다음 표에 있는 보기들은 히브리어 본문의 문제보다는 우리말 표현의 문제에서 두 본문이 『개역개정판』에서 제각각 달라진 경우들이다. 이 경우도 두 번역 모두 저마다 의미가 있으므로 상호독회를 통해 한 번역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히브리어	『구약전서』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왕상 8:5	לפני הארון	범께 압헤 잇서	櫃 압헤 잇서	궤 앞에 있어	그 궤 앞에 있어
대하 5:6		범께 압헤 서서	櫃 압헤 잇서	궤 앞에 있어	궤 앞에서
왕상 8:25	ךָ ³⁸⁾	네게로 좃차 나셔	네게로 좃차 나셔	네게로 좃아 나셔	네게서 나셔
대하 6:16		네게로 좃차 나셔	네게로 좃차 나셔	네게로 좃아 나셔	네게로부터 나셔

38) 이 경우 히브리어 “르카”는 문자적으로는 “너에게”이지만, 『개역』 성경의 전통은 “너 다움” “너를 대신하여”의 의미로 새겨서 원문에 없는 “~에게서 나다”는 표현을 더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 가운데 일부분(왕상 8:1-53//대하 5:2-6:42)을 보기로 『개역개정판』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역개정판』이 『개역한글판』에까지 이른 우리말 성경 번역의 전통을 개선한 점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이 동일한 평행본문에서 우리는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문제점들 가운데는 『개역한글판』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개역개정판』의 열왕기 개정자와 역대기 개정자의 상호독회 소홀 및 부재에서 비롯한 번역의 비통일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역한글판』까지 이르는 전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것이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와 관련되었든, 우리말 표현과 관련되었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일부분만 대상으로 살폈는데도 위에서 분석한 문제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본문을 관찰한다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개역개정판』 성경은 체계적이고 세밀한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대로 『개역개정판』 작업에서 미처 꼼꼼히 하지 못한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상호독회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히브리어 본문이 같은 부분이라면 번역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히브리어 본문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경우 둘 가운데 어느 번역이 더 충실히 원문을 반영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말 표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우리말 맞춤법과 번역 어투의 일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번역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대한성서공회를 중심으로 “차세대를 위한 우리말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³⁹⁾ 이런 새로운 성경 번역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새로운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서는 『개역개정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행본문 번역의 문제점은 답습하지 않아

39) 이에 관한 글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성경원문연구」 제31호 별책 (2012. 12)에 실린 글들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곧 새로운 성경 번역이 나오고 그것이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한 동안은 여전히 『개역개정판』을 교회에서 정경으로 더 써야 한다. 게다가 이전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의 경험에서 볼 때, 새로운 성경 번역이 교회에서 『개역』 성경의 전통을 대치할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더욱 더 『개역개정판』의 재개정에 우선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개역개정판』의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제기했듯, 적어도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에서 히브리어 본문이 같은 경우에 대하여 면밀한 상호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열왕기 역대기 평행본문, 구약 성경 번역, 개역개정, 본문대조, 본문비평.

Parallel passages between Kings and Chronicles,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New Revised Korean Version, Synoptic parallels, Textual Criticism.

(투고 일자: 2014년 6월 24일, 심사 일자: 2014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8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대영성서공회 편,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명치44[1911]; 韓國聖經大全集 10, 11, 19, 20,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영인본(10권과 11권의 표지에 제각각 『신약(상) (1900)』, 『신약(하) (1900)』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 조선성서공회 편, 『구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昭和 13[1938]; 韓國聖經大全集 40, 41;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영인본.
- 강성열, “개역개정판의 창세기 번역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신학이해』 40 (2011), 11-33.
- 강성열, “개역개정판의 호세아 번역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 (2011), 55-75.
- 강승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구약논단』 38 (2010), 93-113.
- 김정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68:3 (2001), 9-27.
-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 김정훈, 『우리말 역분과 함께 하는 호세아 주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28-29.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나채운, “개역성경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기독교사상』 42:10 (1998), 158-166.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원문연구』 제31호 별책,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2.
- 도한호, “『개역한글판』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 (1998), 19-42.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경진, “하코하님 하르위임의 번역 재고”, 『부산장신논총』 13 (2013), 25-40.
-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박동현,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198-229.
- 서철원, “개역개정판 성경의 문제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신학지남』 68:3 (2001), 176-222.
- 이종록,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본문대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이한수, “개역개정판 ‘성경전서’에 대한 평가-갈라디아서”, 『신학지남』 68:3 (2001), 223-231.

- 유재원,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 『신학지남』 70:1 (2003), 4-8.
- 전무용,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4 (1999), 65-90.
-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성경원문연구』 2 (1998), 91-96.
- 황선우, 『사무엘·열왕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황선우, 『역대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Bendavid, A., *Parallels in the Bible* (heb.), Jerusalem: Carta, 1965, 2010.
- Brooke, A., McLean, N., and Thackeray, H. St. J.,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I:2, I and II K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0.
- Brooke, A., McLean, N., and Thackeray, H. St. J.,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I:3, I and II Chron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 Crockett, W. D., *A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51, 1985.
- Endres, J. C., Millar, W. R., and Burns, J. B.,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 Japhet, S., *2 Chronik*, HThK.AT, Freiburg: Herder, 2003.
- Kegler, J. and Augustin, M., *Synopse zum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 BEATAJ 1, Frankfurt: Peter Lang, 1993.
- Klein, R. W., *2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12.
- Mayer, G., “ יְהוָה *jdh*, II. Bedeutung, 1. im hebr. Sprachgebrauch”, *ThWAT* III (1982), 455-458.
- Newsome, J., *A Synoptic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With Related Passages from Psalms, Isaiah, Jeremiah and Ezra*, Grand Rapids: Baker Books, 1986.
- Vannutelli, P., *Libri Synoptici Veteris Testamenti seu Librorum Regum et Chronicorum loci paralleli*,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31.

<Abstracts>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Parallels between Kings and
Chronicles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Based on the
Analysis of 1Ki 8:1-53 and 2Ch 5:2-6:42**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nalyses the texts of sample passages (1Ki 8:1-53//2Ch 5:2-6:42) from the parallels between Kings and Chronicles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e main perspective is that the translation of the parallel texts should be equal, if both Hebrew texts are identical. The result of the analysis naturally shows the improvement of the NKRV (1998), but also exposes its problems in the translation. These problems are to be categorized as the following: (1) cases where incorrect translations or mistakes of the previous version,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56) are maintained; (2) cases where problems of translation are newly raised in the NKRV. These problems are found not only in one of the parallel texts, but sometimes in both of them. They are concerned mainly with the differentiated translation of the identical source text, and the active revision of one part of parallels in the NKRV. They were therefore caused either by a careless reviser, or by the absence of mutual reading to reach a consensus between revisers of the parallels.

The problematic cases can be found without effort, although the present study has set the limit to analyse just one chapter. There should therefore be much more cases where transl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Kings and Chronicles need reconsideration. Finally, the present study insists that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must be revised once more, at least in the passages of parallels between Kings and Chronicles.